

광주 외국인 범죄 갈수록 늘고 흉포화

지난해 320건 발생 ... 전년보다 37%나 급증

광산경찰, 외국인 자율방범대 구성 등 대책마련 나서

광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동안 2배 이상 외국인이 늘어난 광산구 지역에서는 경찰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구속 11명 불구속 309명 등 모두 320명으로 2011년의 202명(구속 8명·불구속 184명)보다 118명(37%)이 늘었다.

외국인 범죄가 이처럼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는 광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만4492명으로, 2009년 1만2118명에 비해 2374명이 늘어났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체류 외국인 수는 25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3024명 ▲2007년 4037명 ▲2008년 5162명 ▲2009년 5576명 ▲2010년 6608명 ▲2011년 6890명 ▲지난해 7110명 ▲올해 746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도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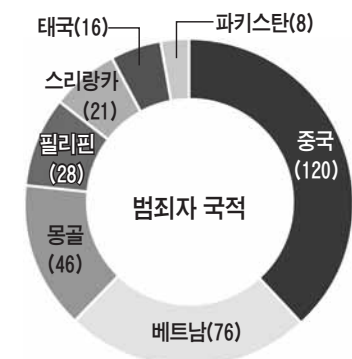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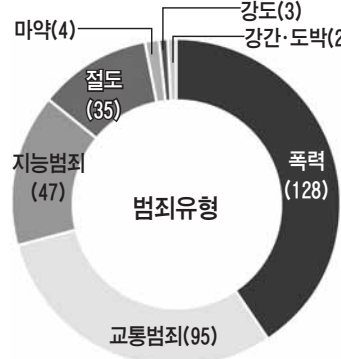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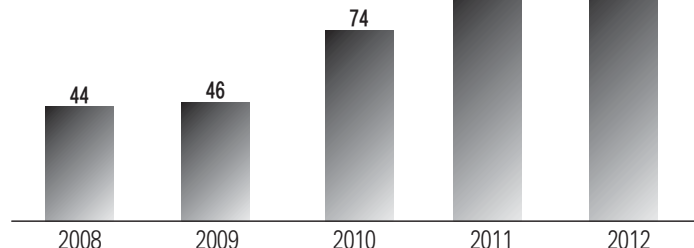
까지 5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52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8년 44건 ▲2009년 46건 ▲2010년 74건 ▲2011년 92건 ▲지난해 9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범죄 95건 ▲지능범죄 47건 ▲절도 35건 ▲마약 4건 ▲강도 3건 ▲강간·도박 각각 2건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76명 ▲몽골 46명 ▲필리핀 28명 ▲스리랑카 21명 ▲태국 16명 ▲파키스탄 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이 외국인 범죄가 늘고 갈수록 흉포화되자 광산경찰은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광산경찰은 최근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11개국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학원 강사·유학생·목사 등 외국인 29명을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밀집지역·다중이용업소 및 하남공단 내 기숙사·편의점 인근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현재 광산구 내 외국인 다중이용업소는 송정(14곳)·월곡 및 우산(11곳)·하남(3곳)·평동(2곳)·신가(1곳) 등 모두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 외국인 범죄 실태
•2011년 202명(구속 8·불구속 184)
•2012년 320명(구속 11·불구속 309)

■광산구 외국인범죄



이들 자율방범대원은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생기는 고민을 상담해주는 고민상담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광산경찰 김은석 외사계장은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 한국인 대상 범죄

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효과적으로 운영, 외국인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한빛원전 5호기 증기 발생기 부실한 세정 작업 의혹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영광) 원전 5호기 증기 발생기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원전 당국 조사에 들어갔다.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실한 세정 작업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9일, 한빛 5호기 증기발생기 산(酸) 세정 작업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지난 2009년 '한빛 5호기 증기발생기 산세정 및 이물질 제거

용역' 작업을 실시했던 해당 용역 업체가 작업 과정에서 증기 발생기 세정에 필요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정 작업은 증기 발생기 내부의 묵은 찌꺼기 등을 제거해 열효율을 높이고 증기 발생기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안위 측은 "4년 전 내용이라 민원인이 제기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4원침 (8868) 김장두



휴가 온 50대 뺑소니차에 숨겨

섬으로 휴가를 왔던 50대 남성이 뺑소니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용의 차량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19일 안도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새벽 5시20분경 안도군 소안면 마라리 인근 도로에서 강모(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이날 계모인 회원 8명과 함께 휴가를 내 소안도를 찾았다가 새벽 "산책하러 간다"며 나간 뒤 버스를 탔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공무원 지방생 고시원 여성에 강도짓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고시원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공무원 지방생이 경찰서행. ○19일 순천경찰청에 따르면 박모(21)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50분경 순천시 덕월동 S고시원 정모(여·30)씨 방에서 정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박씨는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던 중 시험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 98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후회. /순천=김은경기자 ejkim@

여수산단 화학물 운반선 불선원 등 4명 화상

19일 오전 7시 40분께 여수시 삼일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중흥 부두에 계류중인 401t급 화학물 운반선 H호에서 화재가 발생, 배모(57)씨 등 선원 3명과 김모(32·검정사)씨 등 모두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여수산단 내 Y화학회사에서 H호 내부 탱크까지 관로를 통해 화학물질인 펜탄가스 선적을 마친 뒤 선적 물질을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양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펜탄을 선박 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증기에 의한 미상의 스파크가 점화돼 일어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19일 오전 7시 40분께 여수시 삼일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중흥 부두에 계류중인 401t급 화학물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 선원 배모(57)씨 등 모두 4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火남火녀’

헤어진 남친 전화 안받아 ... 집에 불지른 20대 여

여친 이별 통보에 ... 주차차량에 불지른 30대 남

헤어진 남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격분, 화끈에 집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등)로 안모(여·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M 빌라 내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화재로 복도와 방화문 등이 타 8500만원 상당의 재산피

해가 났고 빌라에 사는 안모(34)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안씨는 술을 마시고 일주일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자 화끈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경찰은 또 지난달 19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양지병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과 주차된 조모(39)씨의 트럭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모(3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화순 동북농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검찰에 고발

전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화순 동북농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이날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20일 실시되는 동북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이날 오전 선거인 B씨와 C씨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잘 부탁한다'고 인사한 뒤 현금 10만 원씩을 각각 건넨 혐의(농협조합장

법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선거인 다수에 게도 돈 봉투를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거법과 관련,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고, 선거인 자택을 방문해 지지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기부행위를 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전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썰개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사정상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제일 오피스텔 101호 25평)
- 매 매 - 1억 7500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대출 - 7300만원(월 이자 35만원)
- 임대 - 보 3000만원에 월 125만원 현재 편의점 영업중
- 수입 - 7200만원 투자에 월 90만원
- 기타 - 차후 매매시 2억정도 예상

주인 직매 : 010-3605-5000